

# 올해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여행지는?

크리스마스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여행지는 어디일까.

10일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당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프랑스, 홍콩 등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4곳 모두 아시아 지역으로 변함없이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일 년 내내 성수기인 일본은 크리스마스에도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북해도와 오사카, 규슈, 유후인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들 지역 모두 온전히 잘 알려진 여행지다.

다음으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일년 내내 성수기’ 일본, 온천 여행지 으뜸

베트남·캄보디아 뒤이어...중국 대련 3위

‘유일한 유럽’ 프랑스·가성비 높은 홍콩 순

가 뒤를 이었다.

하노이와 하롱베이, 앙코르와트와 씨엠립 등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핵심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이 많다. 전신마사지와 수상인형극, 나이트 시티 투어 등이 포함된다.

3위는 중국 대련이 차지했다. 1시간 30분 남짓한 짧은 비행시간으로 가깝게 떠날 수 있는 여행지

다.

안중근과 신채호 의사가 수감됐던 여순감옥과 독립운동가들이 재판을 받았던 여순관공법원 등 역사적 이점이 담긴 관광 일정이 포함된 상품은 더욱 의미가 깊다.

또 순위 내 유일한 유럽인 프랑스는 낭만적인 도시 파리과 최근 JTBC 드라마 너 패키지 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몽생미셸을 비롯해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서유럽 5개국까지 여행할 수 있어 알차다.

마지막 5위는 가성비 높고 인기 있는 여행지 홍콩이다.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스탠리부터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에스컬레이터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홍콩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빅토리아 피크의 방문 수요가 높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다섯 개 여행지 모두 참좋은여행을 통해 떠날 수 있다”며 “기획전이나 선착순 예약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스



의류관리기·빨래건조기 매출 급증

## ‘스타일러’가 가전 판도 바꾼다

이마트, 2017년 가전 매출 분석

건조스타일러 상품 매출 급상승  
원동형 일반세탁기 시대 저물고  
스타일러, 가전 매출 상승 견인

가전시장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일명 웨더독(Wag the dog, 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이사·혼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전자옷장, 흔히 ‘스타일러’라 불리는 의류 관리 제품과 빨래 건조기가 그 주인공이다. 비야흐로 일반세탁기가 저물고 ‘스타일러’ 시대가 온 것이다.

이마트가 연말을 맞아 최근 3년간 가전매출을 집계 분석한 결과 빨래건조기와 스타일러 상품군 매출이 폭증하면서 가전 분야 매출 순위 변화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빨래건조기와 스타일러가 함께 속한 ‘건조·스타일러’ 상품군은 2015년까지만 해도 가전 매출 순위에서 129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했었다. 연 매출 규모도 3억원 수준으로 미미했으며, 가전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0.1%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일반세탁기(원동형 세탁기)는 단연 9위, 드럼세탁기는 12위를 차지했다. 이때만 해도 일반세탁기 매출이 드럼세탁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우선 건조/스타일러 상품군이 94위로 떠올랐다. 순위 35계단을 상승했다. 연 매출액이 20억원으로 6~7배 뛰면서 가전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구성비도 0.2%로 증가했다.

드럼세탁기의 추격도 이어졌다. 일반세탁기가 9위(293억원)에 머무는 사이 드럼세탁기는 10위(289억원)로 뛰어오르면서 일반세탁기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 그러다 ‘건조/스타일러’ 상품군 매출이 빅뱅을 일으킨 건 올해 들어서다. 주객이

전도됐다. 미세먼지가 가장 큰 공신이다.

올 1~11월 ‘건조/스타일러’ 상품군은 가전 매출 11위에 등극하며 전통의 강자였던 일반세탁기(12위/250억원)를 제쳤다. 순위 83계단을 단번에 밀어 올렸다.

매출액도 3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신장했다. 매출 구성비 역시 2.2%로 이제 여전한 ‘대품(大品)’ 가전군에 속하게 됐다. 더욱이 ‘스타일러’ 매출만 따로 본다면 1~11월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4937%에 이른다. 드럼세탁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매출(334억원)이 33.1% 증가하면서 매출 순위 7위로 약진했다.

이에 따라 세탁/건조/의류관리 등 의류 관리 가전 매출액은 지난해 596억원에서 올 1~11월 88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1~11월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은 46.2%에 이른다. 한편 스타일러는 옷을 흔들어주는 ‘무빙 헤어(Moving Hanger)’와 물로 만든 스팀 살균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 구멍을 좁혀주고 냄새를 없애주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코트 등 고가 의류의 잦은 드라이 크리닝이나 정장 바지의 칼집을 잡기 등 잔노동을 벗어날 수 있어 맞벌이, 싱글족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옷에 남아있는 황사와 미세 먼지를 없애주는 기능이 트리거(trigger,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던 올해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또한 빨래건조기 역시 미세먼지 영향으로 실내나 베란다에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 수 없는 날이 많아지면서 점차 필수 가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간 제약이 있는 가스 건조 방식이나 전기로 부담이 큰 열풍 방식이 아닌 제습기 방식의 건조기가 등장하면서 탑카페 등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 비트코인, 정부 가상화폐 규제 소식에 ‘가격 폭락’...1500만원대로 곤두박질

2500만원 수준서 40% 하락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전해지면서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30% 이상 폭락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코인당 1550만원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오후 2500만원 수준에 비해 무려 40% 가까이 빠진 것이다.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 총액도 현재 26939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조그라들었다.

비트코인은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락한 뒤에도 이를 뛰어넘는 시세를 분출해 왔으며 오히려 급락을 매수 기회를 삼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또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금도 대거

몰려들고 있다.

올해 1월 초 100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만 무려 25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이상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한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다른 나라보다 20%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비싼 가격에 거래돼 온 실정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이 같은 과열 사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최근 금융위,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 국내 거래 규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에 TF는 이르면 내주 중으로 1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전면 거래금지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날땐 온면, 오뎅한그릇~

(주)광주신세계 (총괄

임원 최민도) 지하1층

식품매장에 겨울철 대표간식인 온면, 오뎅 등 따끈한 국물요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고소함이 느껴지는 시원한 국물과 탱탱하고 쫄깃한 면이 조화를 이루며 씹는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7,000원~ 8,900원이다.

### 오늘 Lotto 제 784회차 당첨결과 (2017년 12월 9일 추첨)

3 10 23 24 31 39 + 22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9	1,908,678,000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1	56,137,589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257	1,268,506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5,089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699,421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